

# 도내 초중고생 48.7% “언어폭력 당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대면 접촉 감소로 발생한 학생들의 사회성·공감 능력 부족 문제가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관계·회복·지지 중심의 학교폭력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 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14만 7,119명 중 45.8%(6만 7,31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9%(1,288

## 전북도교육청,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 4월 11일~5월 20일 초·중·고3 학생 대상 조사  
공감능력 부족이 원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키로

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0.6%p 소폭 증가한 수치다.

피해 응답 학생은 초등학생 684명, 중학생 433명, 고등학생 156명, 기타 5명이다. 고등학교는 소폭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 중학교는 크게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48.7%)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

았고 집단따돌림(15.5%), 신체폭행(11.5%), 사이버폭력(7.7%), 스토킹(3.3%)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폭력과 금품갈취, 강요 등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피해 시간대를 살펴보면,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35.3% → 42.3%), 학교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23.6% → 13.4%)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시간(11.1%), 학교시간(8.3%), 정규수업시간(6.9%)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41.3%)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도(12.4%), 운동장(7%) 등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교외에서는 사이버 공간(8%), 우리(친구)집(3.6%), 놀이터·공원(3.3%) 순으로 높았다.

가해 이유는 장난으로 이유 없이(41.0%), 나를 괴롭혀서(26.4%), 오해와 갈등으로(10.7%), 맘에 안 들어서(10%) 등을 꼽았다.

한편 폭력을 당한 학생의 약 80%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

신고 대상은 가족(37.3%), 학교(27.8%), 친구나 선배(13.4%) 등이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 응답은 62.7%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같이 괴롭혔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교육을 통한 학습 중심의 교육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전예방부터 사안처리, 사후관리까지 학교폭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학생과 교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돼지 근육 줄기세포 유지 세포외기질 효과 확인

전북대 한재호 대학원생 국제학회서 ‘우수포스터’ 배양육 생산 연구 ‘주목’



전북대학교 K21 동물 식육을 위해 요소 제어 그린바이오 인제 양성 연구단 한재호 대학원생(농축산식품융합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최현우)이 최근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2022(AAAP 2022) 우수 포스터 선별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축산학계가 참여하는 대회로,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축산 분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다.

올해는 ‘인간과 자연을 위한 축산’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 12개 분야의 컨퍼런스, 그리고 1500명 이상의 포스터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한재호 대학원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Efficiency of extracellular matrix for maintenance of porcine satellite cells in vitro’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돼지 근육 줄기세포의 유지에 있어 다양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미래 대체 식품인 배양육 생산에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 연구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분자세포실험실(공동연구개발) 심관섭 교수와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정은성 기자

## ‘클래식, 내달 25일 책으로 만나요’

전주대 이주용·김기정 교수 인문학콘서트  
동행티켓 1+1 이벤트 사랑의 열매 통해 기부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와 신협디자이너학과 김기정 교수는 오는 10월 25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클래식, 내달 25일 책으로 만나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으로 만나고 클래식-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프랑수와즈 사강의 동명소설과 요하네스 브람스의 실내악 음악을 한 무대에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문화연구자 김기정 교수의 책 소개와 피아니스트 이주용 교수의 연주와 해설 아래 전주대 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슈테른 앙상블’의 연주로 구성된다.

특히, 청중이 구매한 티켓의 동행티켓 좌석을 문화사회계층에게 기부하는 ‘동행티켓 1+1’ 이벤트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진행된다.

이근호 문화융합대학 학장은 “문화융합대학 교수가 화합해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하니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기대된다”며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주대 문화융합대학이 지향하는 바를 교수님들이 몸소 보여 주는 의미 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10-3983-4425)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3일 8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회원종목단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엘리트·생활체육 동시 활성화 방안 요구

회원종목단체 회장단, 도교육청 개최 간담회서  
1교 1기 운동·분기별 정책 간담회 운영 등 건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체육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교육청은 13일 8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회원종목단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교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거석 교육감이 마

련한 자리로 전라북도체육회 정경선 회장과 신준섭 사무처장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회장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종목단체 회장단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서거석 교육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현재 각 종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특히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며 △1교 1기 운동 △분기별 정책 간담회 운영 △학교운동부 창단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직 전환 등을 건의했다.

또한 특기 교사 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교사 가산점과 관리자(학교장)의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약속하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담당부서와 협의 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설립

## 부지 확보... 1050평 규모

도교육청, 장수 계곡 주민들과 논의 끝에... 2025년 개교

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가칭 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군 계곡면 구원촌초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총 15,366㎡(4,656평)에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적기 개교가 우려되는 상황이 었다.

이에 지역 발전 효과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취지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학교 설립 필수 사유지(3,467㎡/1,050평) 매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가칭 동부산악권 특수학교는 예정대로 2022년 설계 공모,

2023년부터 시설풀사를 거쳐 2025년 3월 총 10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양보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학교가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용 계북면장은 “당초 부정적이었던 주민들의 마음이 도교육청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에 움직인 것 같다”면서 “학교가 설립되면 인구 절벽인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지역에는 10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 대부분 전주를 중심으로 중·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동부권 지역의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주나 남원 등으로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정은성 기자

## “은화학교 학생안전 진단·인권 전반 특별감사를”

장애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책위, 학교장 등 중징계 촉구

“실무협의 거쳐 특강 추진할 것”  
서거석 교육감, 수용입장 밝혀

은화학교 장애학생사망 대책위원회는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사망사건과 관련한 학생안전 진단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사망 사건 3일 만에 경찰조사에서 119 응급처치 및 응급 대응 절차상 이상 없음으로 결정됐다고 허위보고한 학교 관계자와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5월 27일 은화학교에서 1학년 장애학생이 학교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08일째 되는 날”이라며 “작년 11월에도 은화학교 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11월 사건은 2차 가해도 매우 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대책위 관계자 40여 명은 기자회견 이후 도교육청 1층에서 서거석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 대표,



은화학교 장애학생사망 대책위원회는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사망사건과 관련한 학생안전 진단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대책위에서 요청한 은화학교 특별감사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히고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은화학교, 선화학교, 동암초등학교, 특수학급 학부모들과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가 함께 했다.

특히 최창현 대표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사건과, 전년도에 발생한 장애학생 학대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고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100%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 메타버스 영어교육전문가 자격증 과정 신설

원광대학교는 메타버스 영어교육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내에 신설하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원광대 영어교육과는 한국전문지도사 협회와 협약을 맺고 메타버스 영어교육전문가 과정을 신설했다. 또 정규 교과과정에 메타버스 영어교

육전문가뿐만 아니라 VR·AR 콘텐츠전문가, 4차산업혁명 융합지도사, 영어교육콘텐츠전문가, 스피치지도사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대적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유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